

# 가정환경적 변인 및 아동개인적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 성과 연령에 따른 분석\*

The Relationships of Home Environment and Personal factors to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 Analysis of sex & age\*

부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정희원  
교수 김경연

Dept. of Home Economics Pusan national university

Doctorial Course : Hee Won Jung

Professor : Kyong Yun Kim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home environments, personal factors on prosocial behaviors through analysis on children's sex and age.

The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method from 190 elementary school and 102 middle school children in Pusan. The instruments used are the child's prosocial behavior test on the basis of the self report scale by Yang, Jean Sook(1991). Frequency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applied for data analyses.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Prosocial behaviors were directly influenced by home environments and personal factors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Personal factors were stronger than home environments in influencing on children's prosocial behaviors. (2) Girl's prosocial behaviors were influenced by home economic level, parent's educational level, leaderships, the sphere of peer relations, popularity, prosocial behavior experience and maturity of prosocial motive. Boy's prosocial behaviors were influenced by leaderships, the sphere of peer relations, popularity, prosocial behavior experience and maturity of prosocial motive. (3) The effects of home environments and personal factors for prosocial behavior differed according to children's age. The more children aged, the less home environment & effective factors influenced.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임.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친사회적 행동이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타인을 도와주는 행동(Eisenberg, 1983)을 의미하며, 협동, 나눔, 도움 및 위안 등 문화적으로 권장되는 행동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행동은 위만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능력(O'connor, 1981)이며, 상인기의 사회적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Hartup, 1970)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아동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간주된다.

아동의 이러한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은 다양한 환경적 및 개인적 변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가정환경적 변인인 부모의 직업(양진숙, 1991; 이영주, 1989), 교육수준(양진숙, 1991; 이영주, 1989), 훈육방식(김지신, 1985) 및 양육행동(양진숙, 1991, 이순복, 1993; 이영주, 1989; 정현희, 1990)과 개인적 변인인 아동의 성(이순복, 1993; 이영주, 1989; 장선희, 1991; 정현희, 1990; 한영희, 1991), 연령(김지신, 1985; 박은실, 1987; 배선호, 1983; 이삼숙, 1984; 장선희, 1991; 한영희, 1991) 및 친사회적 능력추론(박미화, 1989; 박은실, 1987; 장선희, 1991; 정미사, 1991) 등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대한 이들 요인의 영향이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연구결과들이 서로 일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다룬 경험적 연구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대하여 단편적인 지식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발견되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제한점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첫 번째 제한점은 가정의 경제적 지위나 부모의 양육태도,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 수준 같은 가정환경적 변인과 아동개인적 변인들을 따로 분리하여 연구하였기 때문에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중요

도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환경적 변인과 아동개인적 변인을 함께 설정하여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아동개인적 변인은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친사회적 행동은 사회적 맥락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행동의 한 범주이므로 지도력, 인기도 및 또래관계범위 등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개념인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지도력이 높고, 또래관계범위가 넓으며, 인기가 많은 아동이 사회적 적응능력이 뛰어나다(마송희, 1990; 한성희, 1988; Berkowitz, 1972; Carlson, 1984; Coie & Dodge, 1983; Ladd & Price, 1987)고 하였다. 사회적 능력을 사회적 인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사회적 능력의 하위개념으로 보기도(O'Mally, 1977)하므로, 위의 변인들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개인적 경험과 관련된 변인을 보면, White(1972)는 12세의 남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성인의 도와주기 행동을 분 적이 있는 아동이 고아들에 대한 기부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과거 친사회적 행동의 경험이 현재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학자들은 친사회적 발달이 이해되기 위해서는 친사회적 동기와 친사회적 행동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즉 같은 친사회적 행동이라도 그 행동의 동기가 어떠한가에 따라 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 차이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Eisenberg & Miller, 1991). 우리나라의 경우 친사회적 동기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이나를 다룬 연구는 있었으나(강계순, 1986; 이연강, 1981),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이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직접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지도력, 또래관계범위, 인기도, 과거의 친사회적 행동경험 및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제한점은 연구결과가 가장 불일치하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부분이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성과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관한 빈도의 차이만을 보았기에 연구결과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즉 성 혹은 나이의 증가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만을 보았기에 연구결과도 불일치하였고, 성과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연구도 없었다. 따라서 성과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가 왜 이렇게 불일치하게 나타나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과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변인들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적 변인과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아동개인적 변인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으로 설정된 가정환경적 변인에는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및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이 포함되고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아동개인적 변인에는 아동의 지도력, 또래관계범위, 인기도, 과거의 친사회적 행동경험 및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이 포함된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가정환경적 변인, 아동개인적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아동의 가정환경적 변인, 아동개인적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 3. 용어 정의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인들의 명명적 정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 1)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maternal leading level about prosocial behavior)

어머니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성숙한 친사회적 동기를 강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이 높을수록 성숙한 친사회적 동기를 강조하는 것이다.

### 2) 지도력(leadership)

지도력은 대인관계에서 지도자 역할의 수행 정도, 사회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정도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이 따라하는 활동을 먼저 시작하고, 친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제안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능력을 말한다.

### 3) 또래관계범위(the sphere of peer relations)

또래관계시 나타나는 또래 관계 유지의 지속 정도, 또래의 수, 또래 관계에 할애되는 시간, 또래 관계를 즐기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또래 관계란 지위나 입장이 비슷한 아동이 학교나 가족 같은 사회 체계의 조화속에서 기능하는 조직화된 상호작용을 말한다.

### 4) 인기도(popularity)

인기도는 한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가치있는 사회적 파트너로 간주되는 정도로써 본 연구에서는 또래집단내에서 한 아동에 대한 또래 아동의 선호성 정도, 호감도를 의미하며, 또래 지명 방법에 의해 많은 아동이 좋아하는 아동으로 지명한 아동이 인기 있는 아동이 된다.

### 5) 친사회적 행동경험(prosocial behavior experience)

본 연구에서는 과거에 남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받은 경험을 친사회적 행동경험이라고 정의

한다.

#### 6) 친사회적 동기(prosocial motive)

친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하는 내적인 욕구, 흥미, 필요성(Weiter, 1992)등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친사회적 동기란 친사회적 행동의 성숙도를 의미한다.

#### 7) 친사회적 행동(prosocial behavior)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행한 행동의 결과가 타인에게 이익을 주었을 때 경우를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친사회적 행동의 개념

친사회적 행동이란 '타인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광범위한 의미를 내포하는 용어(Perry, 1985, 유희정 재인용)로 그 개념적 정의가 명료하지 못하지만 대략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간주되고 있다.

Iannotti(1985)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도움, 나눔, 위안 및 협동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도움행동(helping)이란 한 아동이 다른 아동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하거나 선생님 또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도와주는 것 및 다른 아동이 진행중인 활동을 쉽게 해 주는 행동 등을 말하며, 나눔행동(sharing)은 전에 아동의 소유였던 물건을 다른 아동에게 실제로 제공하는 행동을 말한다. 또한 위안행동(comforting)은 기분이 상하거나 슬픔에 빠진 타인을 위로하고 동정심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동행동(coopering)은 두 아동 모두 환경으로부터 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친사회적 행동과 구별된다. 여기서 도움행동, 나눔행동, 위안행동은 다른 아동이 주로 이익을 받는 것인데 비해, 협동행동은 청소년기와 같이 두 아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추진하는 행동을 말한다.

### 2. 가정환경적 변인 및 아동개인적 변인과의 친사회적 행동

아동의 가정환경적 변인에 관한 선행연구를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의 차원에서 살펴보겠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경험과 관찰, 타인의 모델링에 의해 축적된 다양한 사회학습경험에 의해 친사회적 행동을 배워가며(Bandura, 1967), 특히 부모는 아동의 1차적인 양육자로서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연구자들(Hoing, 1982, Waxler, 1979, 김지신, 1985, 이화용, 1989)은 아동의 사회적 행동발달에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Hoffman(1975), 김지신(1985), 정혜란(1982)등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가장 많이 공헌하는 부모의 훈육방법은 귀납적 훈육이라고 하였다. 귀납적인 훈육방법 즉 행동의 결과가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여 훈육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아동은 타인에 대해 사려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옳고 그름을 지적하면서 자녀에게 추분을 해 주는 것이 사려 깊게 생각하는 모델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되고, 자녀에게 감성이입적 경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연구자(김지신, 1985, 정혜란, 1982, Eisenberg & Mussen, 1977)들은 귀납적 훈육을 아동의 행위가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는 자기귀향귀납(self-oriented induction)과 아동의 행위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는 타인지향귀납(other oriented induction)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하였다. 그러나 귀납적 훈육이 단순히 두 차원으로만 분류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친사회적 동기의 발달단계와 관련시켜보면 더 많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적 동기의 단계에 따라 어머니가 어느 단계의 친사회적 동기를 강조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지도하는지를 연구하여,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 수준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과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양진숙(1991), 이영주(1989)는 부모의 직업 지위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다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영애(1986)와 Waxler(1979)는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은 관계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의 개인적 능력을 사회적 능력과 관련시켜 본 선행 연구들을 보면 또래관계범위가 넓을수록(마송희, 1993; 박경자, 1991), 인기도가 높을수록(김순덕, 1983; 임연진, 1992) 사회적 능력이 우수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도력을 사회적 능력의 하위 변인으로 보고 있다(정현희·최경순, 1993; 최경순, 1992; 한성희, 1987). 이들 변인 모두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아동개인적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이 따로 분리되어 연구되고 있기에,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시켜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기도는 타인에 의한 사회적 수용 여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기있는 아동은 사교적, 관용적, 적극적인 행동특성을 보인다(정갑순, 1980; 정영인 재인용)고 하였다.

또래관계범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add와 Price(1987)는 학령전 유치원시기에 또래와의 경험기간이 길고, 또래와 보낸 시간이 많고, 또래의 수가 많은 아동 즉 또래관계범위가 넓은 아동이 국민학교 입학 후에 더 나은 사회적 적응능력을 보이고 또래와의 관계도 친숙함을 보고하였다. 국민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마송희(1994), 박규호(1985)의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볼 때 국민학교 입학 전에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경험이 많을수록 국민학교에서의 사회적 기술 수준이 높고,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유치원생과 국민학교 저 학년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친사회적 행동의 안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되는 10세 이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또래관계 범위에 따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고 본다.

지도력은 사회적 능력 중 하나로 인식되는 개념으로, 지도력이 높은 아동은 성숙한 도덕추론을 하며(Berkowitz, 1972), 또래에 의해 잘 도와주는 친구라고 판단된다(Carlson, 1984)고 하였다. 지도력은 긍정적인 사회적 능력의 하나이나, 이정아(1995)의 연구는 지도력이 높은 청소년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도력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과거 친사회적 행동의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없으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아동이 경험과 관찰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학습경험에 의해 친사회적 행동을 배워간다고 하였으므로 과거의 친사회적 행동경험은 친사회적 행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리라 유추해 볼 수 있다. 과거에 도움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아동일수록 남을 도우려고 하는 의사를 더 많이 보인다(한은옥 재인용 1988)한 연구도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과거에 도움을 받거나 준 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친사회적 행동에서 중요시되는 영역은 아동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기(motive)가 외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는 자기 중심적인 이유이나 또는 내적인 가치규범에 의한 내부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냐에 관한 것이다.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동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Bartal(1976), O'conner(1981)등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중심적인 이유나, 외적 보상을 바라는 이유보다는 점점 내재화된 이유 즉 책임감이나 규범에 의해 도와주기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Eisenberg와 Lennon(1983), Eisenberg와 Miller(1991)는 인지발달적인 측면에서 친사회적 도덕추론과 친사회적 행동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부분적으로 친사회적 행동 중 도움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동기와의 관계(Bemdt, 1981)를 다루거나, 소년들을 대상으로 물건의 기부행동과 친사회적 동기를 다룬 연구(Raviv & BarTal, 1980)는 있으나, 전반적인 친사

회적 동기와 행동 그 자체를 다룬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사회인지적으로 자아중심성의 단계를 완전히 벗어난 10세 이후의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협동행동, 도움행동, 나눔행동, 위안행동에서 친사회적 동기를 살펴보고, 전반적인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

아동개인적 변인에서 먼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연구를 보면 일관성 없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성과 연령에 관한 이전의 연구들은 단순히 성과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빈도에 차이가 나느냐에 관한 연구만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이러한 성과 연령에 따른 빈도의 차이보다는 성과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Mussen, 1983)하다고 하겠다.

우선 아동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를 보면 White(1972), Moely(1974), 이순복(1993), 이영주(1990) 등은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친구에 대해 더 관대하게 행동하며, 협동적이거나 친사회적 행동이 더 높다고 하였다. 반면 Stanhop(1987), 양신숙(1991), 장선희(1991), 정현희(1990) 등은 성별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아동의 연령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강계순(1986), 김지신(1985), 장선희(1991), 한영희(1986) 등은 연령의 증가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으나, 연진영(1987), 이집숙(1984), Ugurel(1952) 등은 연령증가와 친사회적 행동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10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가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Midlarsky(1967), Green(1974) 등의 연구는 친사회적 행동이 10세 정도까지는 연령과 더불어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이집숙(1984)은 10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이 8세 아동보다 낮다고 하였고, Staub's(1970)은 12세 아동이 8세, 10세의 아동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적게 보인다고

하였다. Larson & Richards(1991)에 의하면, 10세에서 14세의 나이는 아동의 사회적 환경이 가정에서 점차 학교와 사회로 확대되면서 사회관계의 중요성이 증가되며,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아동은 가정환경내에서보다 사회관계내에서 더 상호 작용하게 되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가정환경적 변인과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아동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기에 좋은 시기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0세, 12세 및 14세의 아동을 표본집단으로 선정하여 아동의 가정환경적 변인과 아동개인적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표본은 위의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마와 같이 10세, 12세 및 14세 아동이 대상이다. 부산시 소재 K초등학교, H여중 및 D중학교를 임의추출하여, 초등학교 4학년 2학급, 6학년 2학급, 남녀 중학교가 1학급 총 6급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305부 중 연구에 활용된 설문지는 남학생 148부, 여학생 144부 총 292부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세 아동 95명, 12세 아동 95명, 14세 아동 102명으로 성과 연령에서 고른 분포를 보였다.

### 2. 변인 측정

#### 1)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은 김지신(1985)의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아동이 응답토록 구성된 것으로 자신이 집안 일을 도와주지 않기, 거짓말하기, 약속 어기기와 같이 친사회적 행동에 위배된 행동을 하였을 때 어머니가 어떤 단계의 친사회적 동기를 강조하면서 지도하느냐에 관한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범주의 각 문항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외적인 보상지향: 아동에게 행동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아동의 행위가 아동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불이익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그러면 엄마도 너를 도와 주지 않을 테니 결국 네 손해다.”와 같은 것이다.

2) 사회적 규범지향: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함이 없이 아동에게 행동의 사회적 규범을 일깨우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엄마 일을 도와야지 그러면 되느냐.”와 같은 것이다.

3) 내적인 보상지향: 아동에게 행동을 변경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으로서 아동의 행동으로 인해 어머니가 느낄 감정을 지적함으로써 아동의 내적 불편함에 호소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엄마는 혼자 힘들다.”와 같은 것이다.

점수는 외적인 보상지향에 반응하면 1점, 사회적 규범지향에 반응하면 2점, 내적인 보상지향에는 3점을 주었고, 점수의 범위는 3-9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이 성숙지향적임을 나타낸다. 내적 신뢰도 계수는 0.504이다.

## 2) 지도력

지도력은 Pease & Clark(1989)의 사회적 능력 척도에 근거하여 구성된 최경순(1992)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척도내용은 다른 사람이 따라 할 활동을 먼저 시작하고, 친구가 기꺼이 받아들이는 제안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타인과 공유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5개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 반응범주를 갖는다. 지도력의 점수범위는 5-25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도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계수는 0.824이었다.

## 3) 또래관계 범위

아동의 또래관계 범위는 박성연, 도현심(1993)의 '국민학교 고학년용 사회성 조사척도'를 참조로 하여 본인이 직접 제작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척도의 문항들은 또래관계시 나타나는 또래의 수, 또래관계

를 즐기는 정도, 또래관계의 지속 시간 및 또래관계의 유지정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의 반응범주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관계 범위가 넓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계수는 0.773이었다.

## 4) 인기도

아동의 인기도 측정은 배종순(1988)이 변안한 Hymel & Asher(1977)의 또래지명을 채택하였다. 인기도 측정을 위해 학급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 3명의 이름과 '생일파티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 3명의 이름을 적도록 하여, 초대하고 싶은 아동에 지명되면 +1점을, 초대하고 싶지 않은 아동에 지명되면 -1점의 점수를 배정하였다. 학급의 각 아동이 받은 +총점과 -총점을 합한 결과 총점이 많을수록 인기도가 높은 아동으로 규정된다.

## 5) 친사회적 동기

아동의 친사회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이연경(1984)이 제작한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친사회적 행동을 도움, 나눔, 위안, 협동으로 나눈 Iannotti(1985)의 분류에 따라 이 4개 영역의 친사회적 행동상황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움행동은 친구의 문제풀이를 가르쳐주는 상황이고 나눔행동은 자신의 미술도구를 옆 친구에게 빌려주는 상황, 위안행동은 야단맞은 친구를 위로해 주는 상황이고 협동행동은 유리창청소를 같이 해 주는 상황으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에는 3가지 동기 수준을 나타내는 3개의 응답범주가 제시된다. 각 영역의 친사회적 행동을 할 때 왜 그렇게 하는가의 반응범주를 설정하여 1단계에 반응했을 때는 1점, 2단계에 반응했을 때는 2점 그리고 3단계에 반응했을 때는 3점을 배점하였으므로 본 척도의 점수 범위는 4-12점까지이다. 점수 합계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동기가 성숙하다고 하였다.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아동은 처음에 상이나 벌 등 외적으로 주어지는 보상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나 성장하면서 언어적 교육과 모델링을 통해 학습된 규범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단계로 이행해 된다. 좀 더 성장하여 이 규범이 개인적 기준의 형태로 내면화되면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했을 때 주어지는 자기만족감 즉 내적 보상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내적 보상의 다음 단계는 내재화된 규범단계로서 어떤 경우에 자신이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내적인 규범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였으나, 예비조사 결과 본 연구의 대상 아동이 내적인 보상과 내적인 규범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3단계의 반응 범주로 제시하였다. Eisenberg & Lennon(1983)은 내적인 규범단계는 고등학교 이상이 되어야 나타난다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대상이 14세 이전의 아동인 점을 고려하여 3단계로 구분 측정함이 적절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친사회적 동기를 외적인 보상지향, 사회적 규범지향, 내적인 보상지향의 3단계에 반응한 점수로 측정하였다.

각 응답범주를 단계별로 설명하면 1단계는 외적인 보상지향단계로 자신의 쾌락증진이나 직접적인 교환, 미래의 외부적인 보상을 바라고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예: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도와줄 것이니까)을 의미한다. 2단계는 사회적 규범지향단계이며 외부적인 가르침이나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을 따라하는 것으로 외부적인 규범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배웠기에'와 같은 것이다. 3단계는 내적인 보상지향단계로써 친사회적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근원을 두는 것으로 내재화된 가치에 맞게 행동했을 때 느끼는 기쁨과 자신이 느낄 죄의식에 근원을 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를 도와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한 것 같아서'와 같은 것이다. 친사회적 동기 척도의 내적 신뢰도계수는 0.545이었다.

### 6) 친사회적 행동경험

친사회적 행동경험은 과거에 남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받은 경험을 묻는 문항으로 친사회적 동기측정을 위한 도움, 나눔, 위안, 협동의 4문항에 대해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는가를 물어서 '예'와 '아니오'의 반응범주로 측정하였다. 점수는 '아니오'에 반응하면 0점을 '예'에 반응하면 1점을 배점하였으므로 본 척도의 점수범위는 0-4점까지이다. 점수 합계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경험이 많다고 하였다.

### 7) 친사회적 행동

선행연구들은 대개 한 두 가지 종류의 친사회적 행동만을 측정하여 왔으나, 한 두 가지의 측정만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을 위의 Lammotti의 분류에 따라 도움, 나눔, 위안 및 협동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Eisenberg(1989)의 이타성 자기 보고를 기초로 한 양진숙(1991)의 도구를 수정, 보완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도움(helping), 나눔(sharing), 위안(comforting), 협동(coopering)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가 낮은 문항은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Likert식 5점의 반응범주를 가지고, 총점이 높을수록 친사회적 행동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내적 신뢰도계수는 0.821이었다.

이상의 척도들은 아동학 관련 교수님 및 2명의 대학원 전공자들로부터 타당도를 검증받아 사용하였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조사의 자료는 1회의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예비조사는 친사회적 동기와 행동의 척도제작을 위해 1995년 9월 초 부산시내 K초등학교 5학년 2학년 9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케 한 후 회수하였고, 본 조사 자료는 1995



년 9월 말에 표본 추출시 선정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본 척도의 신뢰도를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고,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이용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사용하였다. 변인들간의 관계는 표준화 회귀계수로 평가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가정환경적 변인 및 아동개인적 변인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먼저 연구문제 1에서 밝히고자 한 아동의 가정환경적 변인 및 개인적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독립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상관분석의 결과표는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가정의 경제수준은 부모의 교육수준, 아동의 지도력 및 또래관계범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P<.001$ ), 부모의 교육수준은 아동의 지도력( $P<.001$ ) 및 또래관계범위( $P<.01$ )와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지도력은 또래관계범위, 인기도, 친사회적 행동경험 및 친사회적 동기와 유의한 상관( $P<.001$ )을 보여주었다. 또래관계범위는 인기도 및 친사회적 행동경험과 상관이 있었고( $P<.001$ ), 인기도

역시 친사회적 행동경험 및 친사회적 동기와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지도력( $r=.54 P<.001$ ),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 $r=.52 P<.001$ ), 인기도( $r=.49 P<.001$ ), 또래관계범위( $r=.49 P<.001$ ), 과거의 친사회적 행동경험( $r=.40 P<.001$ ), 부모의 교육수준( $r=.18 P<.01$ ), 가정의 경제수준( $r=.17 P<.01$ ),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 $r=.13 P<.05$ )순으로 상관이 있었다.

아동의 성과 연령별로 변인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전체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가정환경적 변인과 아동개인적 변인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가정환경적 변인 및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아동개인적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도력( $\beta=.54 P<.001$ ), 인기도( $\beta=.50 P<.001$ ), 또래관계범위( $\beta=.49 P<.001$ ),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 $\beta=.43 P<.001$ ), 과거의 친사회적 행동경험( $\beta=.40 P<.001$ ), 부모의 교육수준( $\beta=.18 P<.01$ ), 가정의 경제수준( $\beta=.17 P<.01$ ),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 $\beta=.13 P<.05$ )순임을 알 수 있다. 결과를 보면 지도력이 높고, 또래경험이 많고, 친사회적 동기가 성숙할수록 즉 내적 보상지향적일수록, 인기도가 높고, 과거 친사회적 행동경험이 많으며,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이 높을수록

<표 1> 연구변인들간의 상관계수

변 인	1	2	3	4	5	6	7	8	9
1. 가정의 경제수준	1.00								
2. 부모의 교육수준	.61***	1.00							
3.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	.12*	.22	1.00						
4. 지도력	.26***	.21***	.11	1.00					
5. 또래관계범위	.23***	.17**	.19	.51***	1.00				
6. 인기도	.03	.08	.71*	.35***	.35***	1.00			
7. 친사회적 행동 경험	.04	-.05	.08	.20***	.20***	.17**	1.00		
8. 친사회적 동기	.09	.09	.11*	.20***	.15**	.35***	.19**	1.00	
9. 친사회적 행동	.17**	.18**	.13*	.54***	.49***	.49***	.40***	.52***	1.00

\*  $P<.05$  \*\*  $P<.01$  \*\*\* $P<.001$

〈표 2〉 가정환경적 변인, 아동개인적 변인 및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β)	R <sup>2</sup>
친사회적 행동	가정의 경제수준	.84(.17)**	.48***
	부모의 교육수준	.79(.18)**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	1.16(.13)*	
	지도력	1.24(.54)***	
	또래관계범위	1.14(.49)***	
	인기도	3.58(.50)***	
	친사회적 동기	1.28(.43)***	
	친사회적 행동경험 (constant)	2.95(.40)*** 35.05	

\*P<.05 \*\*P<.01 \*\*\*P<.001 베타β값: 표준화된 회귀계수

아동은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였다. 이들 독립변인 모두는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분산의 약 반 정도인 48%를 설명하였다.

2. 가정환경적 변인 및 아동개인적 변인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가정·환경적 변인 및 아동개인적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성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가 〈표 3〉과 〈표 4〉에 제시

〈표 3〉 여자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144

종속변인	독립변인	B(β)	R <sup>2</sup>
친사회적 행동	가정의 경제수준	1.40(.30)***	.50***
	부모의 교육수준	1.16(.29)**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	.71(.07)	
	지도력	3.46(.49)***	
	또래관계범위	4.34(.48)***	
	인기도	1.15(.38)***	
	친사회적 행동경험	1.40(.30)***	
	친사회적 동기 (constant)	1.15(.38)*** 38.81	

\*P<.05 \*\*P<.01 \*\*\*P<.001 베타β값: 표준화된 회귀 계수

되어 있다. 먼저 여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표는 다음의 〈표 3〉와 같다.

〈표 3〉에 의하면 가정환경적 변인과 아동개인적 변인은 여자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지도력(β=.49 P<.001), 또래관계범위(β=.48 P<.001), 인기도(β=.38 P<.001),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β=.38 P<.001), 과거 친사회적 행동경험(β=.30 P<.001), 가정의 경제수준(β=.30 P<.001) 및 부모의 교육수준 (β=.29 P<.01)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은 영향이 없었으며, 이들 독립변인 모두는 여자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분산의 56%를 설명하였다.

남자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회귀 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 의하면 남자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기도(β=.50 P<.001), 지도력(β=.49 P<.001),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β=.49 P<.001), 또래관계범위(β=.44 P<.001), 친사회적 행동경험(β=.35 P<.001)의 순이었다. 이들 독립변인 모두는 남자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분산의 49%를 설명하였다.

여자아동과 남자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여자아동의 경우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남자아동의 경우는 관계가 없었다. 즉 가정환경변인은 여아의 친사

〈표 4〉 남자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148

종속변인	독립변인	B(β)	R <sup>2</sup>
친사회적 행동	가정의 경제수준	.24(.05)	.49***
	부모의 교육수준	.43(.08)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	1.58(.18)	
	지도력	1.18(.49)***	
	또래관계범위	.96(.44)***	
	인기도	3.73(.50)***	
	친사회적 행동 경험	2.33(.35)***	
	친사회적 동기 (constant)	1.40(.49)*** 32.75	

\*P<.05 \*\*P<.01 \*\*\*P<.001 베타β값: 표준화된 회귀계수

회적 행동에만 영향을 미쳤다.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아동개인적 변인은 남녀아동 모두  $P<.001$ 수준에서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친사회적 동기가 성숙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아동의 경우 지도력이 남자아동의 경우 인기도가 친사회적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가정환경적 변인, 아동개인적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의 나이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대상아동을 10세, 12세, 14세 3개 집단으로 나눈 후 각 집단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0세 아동의 가정환경적 변인, 아동개인적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회귀분석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의하면 10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또래관계범위( $\beta=.58$   $P<.001$ ), 인기도( $\beta=.54$   $P<.001$ ), 과거 친사회적 행동경험( $\beta=.54$   $P<.001$ ), 지도력( $\beta=.51$   $P<.001$ ),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 $\beta=.39$   $P<.001$ ), 부모의 교육수준( $\beta=.30$   $P<.01$ ) 및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 $\beta=.25$   $P<.05$ )의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들 독립변인 모두는 10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분산의 63%를 설명하였다.

12세 아동의 가정환경적 변인, 아동개인적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표 6>과 같다.

<표 5> 10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회귀분석 결과

N=95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	R <sup>2</sup>
친사회적 행동	가정의 경제수준	.73(.14)	.63***
	부모의 교육수준	1.32(.30)**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	2.09(.25)*	
	지도력	1.10(.51)***	
	또래관계범위	1.42(.58)***	
	인기도	3.91(.54)***	
	친사회적 행동경험	3.47(.54)***	
	친사회적 동기	1.21(.39)***	
	(constant)	27.24	

\* $P<.05$  \*\* $P<.01$  \*\*\* $P<.001$  베타 $\beta$ 값:표준화된 회귀계수

<표 6> 12세 아동의 친사회적 동기와 친사회적 행동의 연구모형 회귀분석 결과

N=95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	R <sup>2</sup>
친사회적 행동	가정의 경제수준	1.24(.25)*	.57***
	부모의 교육수준	.25(.05)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	.31(.03)	
	지도력	1.60(.68)***	
	또래관계범위	1.28(.59)***	
	인기도	3.50(.45)***	
	친사회적 행동 경험	4.36(.48)***	
	친사회적 동기	1.43(.44)**	
(constant)	44.41		

\* $P<.05$  \*\* $P<.01$  \*\*\* $P<.001$  베타 $\beta$ 값:표준화된 회귀계수

<표 6>에 의하면, 12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지도력( $\beta=.68$   $P<.001$ ), 또래관계범위( $\beta=.59$   $P<.001$ ), 인기도( $\beta=.45$   $P<.001$ ),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 $\beta=.44$   $P<.001$ ), 과거 친사회적 행동의 경험( $\beta=.48$   $P<.001$ ) 및 가정의 경제수준( $r=.25$   $P<.05$ )순으로 영향을 받았다. 이들 독립변인 모두는 12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분산의 57%를 설명하였다.

14세 아동의 가정환경적 변인, 아동개인적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14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표 7> 14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회귀분석 결과

N=102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	R <sup>2</sup>
친사회적 행동	가정의 경제수준	.47(.10)	.42***
	부모의 교육수준	.48(.12)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	.66(.08)	
	지도력	1.11(.48)***	
	또래관계범위	.47(.19)*	
	인기도	3.34(.52)***	
	친사회적 행동경험	1.41(.18)	
	친사회적 동기	1.26(.47)***	
	(constant)	33.58	

\* $P<.05$  \*\* $P<.01$  \*\*\* $P<.001$  베타 $\beta$ 값:표준화된 회귀계수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인기도( $\beta=.52$   $P<.001$ ), 지도력( $\beta=.48$   $P<.001$ ),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 $\beta=.47$   $P<.001$ ), 또래의 수와 또래관계유지 시간을 나타내는 또래관계범위( $\beta=.19$   $P<.05$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독립변인은 14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분산의 42%를 설명하였다.

가정환경적 변인 및 아동개인적 변인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나이가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향이 아주 낮아짐을 알 수 있다. 10세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의 63%, 12세의 57%를 설명하던 독립변인이 14세의 경우 설명수준이 42%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14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은 본 연구의 독립변인이외의 다양한 변인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가정환경적 변인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는데,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은 10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만 영향을 미쳤으며, 14세 아동의 경우 친사회적 행동에 가정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세 집단 모두 친사회적 동기가 성숙할수록 더 자주 친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기도, 지도력, 또래관계범위가 모두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 친사회적 행동경험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은 10세, 12세 아동의 경우는 영향력이 있었으나, 14세 아동의 경우는 영향력이 없었다.

나이별로 친사회적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면 10세 아동의 경우 또래관계범위, 12세 아동은 지도력, 14세 아동은 인기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환경적 변인 및 아동개인적 변인이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이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여기서 가정환경적 변인에는 가정의 경제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및 어

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이 포함되고, 아동개인적 변인에는 지도력, 또래관계범위, 인기도, 친사회적 행동경험 및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정도가 포함된다.

연구의 설명적 목적에 따라 10세, 12세, 14세의 전제아동을 대상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지도력, 인기도, 또래관계범위,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 친사회적 행동경험,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경제수준 및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 등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은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분산의 4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아동개인적 변인이 가정환경적 변인보다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설명해 주는 변인이었다.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이 아동의 성과 연령에 따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밝히기 위해 연구모형을 성과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먼저 성과 따른 분석을 보면 아동개인적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환경적 변인의 경우 여아만 가정의 경제적 지위, 부모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가정환경의 영향을 더 받음이 밝혀졌다. 또한 여아의 경우는 지도력과 또래관계범위가, 남아의 경우 인기도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친사회적 행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다음으로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10세 아동은 또래관계범위가, 12세 아동은 지도력이, 14세 아동은 인기도가 다른 변인들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연령에 따른 변인들의 영향을 검토할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가정환경적 변인의 영향이 감소한다는 사실이었다. 즉 아동 개인적 변인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유사했으나 가정환경적 변인의 경우 10세 아동은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의 영향을 받고, 12세 아동은 가정의 경제수준의 영향을 받는데

비해 14세 아동은 가정환경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10세경부터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또래와 지내는 시간이 증가함(Larson & Richards, 1991)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사회적 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기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친사회적 동기의 성숙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녀아동이나 10세, 12세, 14세 아동집단 모두 친사회적 동기가 성숙할수록 즉 외부적인 보상 지향보다는 사회적 규범지향이나 내적인 보상 지향일수록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 주었다.

이상으로 남녀와 10세, 12세, 14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각 독립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10세, 12세 아동과 여아가 또래관계범위와 지도력이 가장 큰 영향변인이라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유사한 영향을 받음을 보여주었고, 이 세 집단은 가정환경적 변인의 영향도 받았다. 그러나 14세 아동과 남아아동의 경우 가정환경적 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인기도가 가장 큰 영향변인이었다. 이와 같이 10, 12세 아동과 여아가 그리고 14세 아동과 남아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이후의 친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연구나 교육에도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결과제시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친사회적 행동에 관한 아동개인적 변인의 영향에서 지도력이 높은 아동이 더 빈번한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결과는 지도력이 높은 아동이 또래에 의해 남을 잘 도와주는 친구라고 인식된다는 Carlson (1984)의 결과와 일치하며, 인기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결과는 인기 있는 아동이 더 뛰어난 사회적 기술을 가진다(Gottman & Gonsol, 1974)는 연구 결과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과거 친사회적 행동의 경험이 있는 아동이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한다는 결과는 성인의 행동을 전에 본 적이 있는 아동일수록 고아들에게 아주 귀중한 선물을 기꺼이 주려고 한다는 White(197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White의 연구가 12세의 남아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해 본 연구결과는 연령 및 성에 있어 더 포괄적인 표본을 대상으

로 한 것이기에 결과의 일반화가능성을 높여주었다고 하겠다.

또한 친사회적 동기가 성숙할수록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여준다는 본 연구결과는 Berndt (1981), Raviv(1980)의 결과와 일치하나, 이들 연구는 국민학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도움행동을 연구하였거나(Berndt, 1981), 남아를 대상으로 기부행동만으로 친사회적 행동을 측정했(Raviv, 1980)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는 더 광범위한 연령 범위 및 남녀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도움, 나눔, 위안, 협동의 유형으로 친사회적 동기와 행동의 관련성을 조사한 것이므로 더 포괄적이고 유용한 결과 제시라고 하겠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은 가정의 경제수준과 부모의 교육수준 및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 지도수준이 높고, 인기가 많고, 지도력이 높고, 또래 친구가 많고, 또래와 보내는 시간을 즐기며, 또래관계를 오래 유지하며, 과거에 남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하거나 받은 경험이 많고, 친사회적 동기가 외부적인 보상보다는 내부적인 기쁨이나 책임감, 죄의식때문일 때 더 빈번한 친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남아와 여아의 영향변인을 비교하면 아동개인적 변인에서는 남녀아동이 모두 지도력이 높고, 또래관계범위가 넓고, 또래로부터 인기가 많고, 친사회적 행동경험이 많고, 친사회적 동기가 성숙할수록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보인다고 하였으나, 여아의 경우만 가정의 경제적지위, 부모의 교육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가정환경의 영향을 더 받음이 밝혀졌다.

셋째,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아동의 연령별 영향변인을 살펴보면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가정환경적 요인의 영향이 감소하였고, 전체 연구모형의 설명수준도 낮게 나타났다. 즉 10세 아동은 부모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친사회적 행동지도수준의 영향을 받고, 12세 아동은 가정의 경제수준의 영향을 받는데 비해 14세 아동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정

환경변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 친사회적 행동경험의 영향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아동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친사회적 행동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의 받음을 생각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김지신. 어머니의 훈육방법과 아동의 감정이입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1985.
- 2) 마송희. 유치원 시기의 또래관계 및 사회적 경험과 국민학교 초기의 사회적 수용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5권 1호, 1994.
- 3) 박경자. 1994. 영·유아기 타인 양육이 학령전 어린이의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13권 2호, 1994.
- 4) 박규호. 아동의 협동성 및 경쟁성과 유아교육 경험유무와의 관련성. 계명대학교, 석사학위, 1985.
- 5) 박성연·도현심. 성, 형제수, 출생순위 및 형제성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14권 2호, 1992.
- 6) 박은실. 친사회적 행동과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1987.
- 7) 배중순. 아동의 의견에 대한 일치여부와 친구관계정도가 사회적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대, 석사학위, 1988.
- 8) 양진숙. 초등학교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석사학위, 1991.
- 9) 우희정. 취학전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TV 및 언어적 훈련의 효과. 고려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학위, 1990.
- 10) 이순복.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 1993.
- 11) 이연경.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 1984.
- 12) 이영주. 부모의 운정, 통제 및 형제자매환경에 따른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1990.
- 13) 이정아. 청소년의 인성특성과 가정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 1995.
- 14) 임연진.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아지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1992.
- 15) 장영애. 가정환경적 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인과모형분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1986.
- 16) 정미자.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판단과 감정이입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1991.
- 17) 정현희.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1990.
- 18) 정현희·최경순. 아버지의 양육 참여 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판단능력. 아동학회지 제13권 1호, 1992.
- 19) 최경순.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1992.
- 20) 한성희.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인기도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제9권 1호, 1987.
- 21) 한은옥.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 및 사회인지적 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제26권 3호, 1988.
- 22) Bar-Tal, D. The development of altruistic behavior. *Developmental Psychology*, 16, 516-524, 1980.
- 23) Berndt, T. J. Age changes and changes over time i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between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 408-416, 1981.
- 24) Berkowitz, L. Social norm, feeling, and other factors affecting helping and altruism.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 New York, Academic Press, 1972.
- 25) Carlson, C. L. & Lahey, B. B. Peer assessment of the social behavior of accepted, rejected, and neglect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189-198, 1984.
- 26) Eisenberg-Berg, N. & Hand, M. The relationship

- of preschooler's reasoning about prosocial moral conflicts to prosoci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50, 356-363, 1979.
- 27) Eisenberg-Berg, N. & Fabes, R. A. & Fultz, J. Effects of rewards on children's prosocial motiv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5, 4, 509-515, 1989.
- 28) Eisenberg-Berg, N. & Lennon, R. Prosoci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19, 6, 846-855, 1983.
- 29) Eisenberg-Berg, N. & Miller, P. A. & Shell, R. Prosoci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7, 5, 849-857, 1991.
- 30) Hartup, W. W., & Coates, B. Imitation of a peer as a function of reinforcement from the peer group and rewardingness of the model. *Child Development*, 38, 1003-1016, 1967.
- 31) Hoffman, M. L. Parent discipline and child's consideration for others. *Child Development* 34, 573-588, 1963.
- 32) Honig, A. S. Prosocial development in children. *Young Children*, 6, 51-62, 1982.
- 33) Iannotti, R. J. Naturalistic and structured assessment of prosocial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1, 46-55, 1985.
- 34) Larson, R. & Richards, M.H. Daily companionship in late childhood and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2, 284-299, 1991.
- 35) Ladd, G. W. & Price, J. M. Predicting children's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d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1987.
- 36) Mussen, P. H. Honest and altruism among pre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3, 169-194, 1970.
- 37) O'conner, M. & Cuevas, J. Understanding motivation behind prosocial ac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39, 267-276, 1981.
- 38) Raviv, A. & Bar-Tal, D. Motivations of donation behavior by boys of three different ages. *Child Development*, 51, 610-613, 1980.
- 39) Staub, E. A child in distress: The effect of focusing responsibility on children on their attempts to help. *Developmental Psychology*, 14, 130-140, 1970.
- 40) Waxler, C. Z. Child rearing and children's prosocial initiations toward victims of distress. *Child Development*, 50, 319-330, 1979.
- 41) White, G. M. Immediate and deferred effects of model observation and guided or unguided rehearsal on donating and steal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1, 139-148, 1972.